PA-129

주요 작물의 농업노동력 투입 실태 및 효율적 이용방안

이지은[1]*, 정상택[1], 김연하[1]

[1]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전략사업실

[서론]
주요 작물의 작업단계별, 경영규모별 농업노동력 투입 실태를 분석하여 노동력이 집중되는 시기를 도출하고,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농업노동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 데이터(2005~2015년)를 이용하여 사과와 고구마, 가을배추의 작업단계별 자가노동과 고용노동 투입실태를 분석하고, 지역별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조직현황, 농작업자 모집 및 인력배치, 사후관리, 임금 결정 체계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품목별 농업노동력 투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과는 열매솎기(5~6월), 반사필름 및 잎따기(8~10월), 수확(8~10월) 시기에 노동투입량이 가장 많고, 고구마는 아주심기(5~6월), 수확(10월), 선별 및 포장(10~11월) 시기에, 가을배추는 아주심기(9월), 수확(10~11월), 선별 및 포장(10~11월) 시기에 노동투입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구마의 재배면적이 3.0ha 이상인 농가와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1.5ha 이상인 농가는 고용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사과의 경우 재배면적이 3.0ha 이상인 농가의 자가노동 투입 비율이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자가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지역별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주요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 거창군과 합천군은 운영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농가와 농작업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참여농가와 농작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었다. 둘째, 농가와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근로기간별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운영함으로써 장기간 근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노동투입이 상이한 품목별로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농가에게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6개월~1년 동안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인력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지자체장의 의지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협조도가 높고,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과제번호 : PJ01255804)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44-414-9738, E-mail. jieun7313@ranet.co.kr